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06	12. 13	12. 20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절기입니다. 금주는 첫째 주로 소망을 상징하며,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2.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딤후1~4장, 단1~문1장, 겔1~15장)
3. 예배 반주-이세현 형제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4. 수요일예배와 청년 모임은 매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zoom으로 진행합니다.
5. 11월 생일-이현 형제(8일) 조정화 성도(14일) 임미수 성도(26일) 추문경 자매(29일)
6.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추문경 자매(29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1.대강절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34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출20:13, 신5:17 황희순 집사
(2.Moses 20:13, 5.Mose 5:17)
- 설 교 Predigt 살인하지 말라!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34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영적 고착상태

언젠가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발표한 담배 판매량에 관한 자료인데, 해마다 1월이면 판매량이 줄어들다가 1월 말경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2월이나 3월이면 예년 수준과 같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피우지 않지만, 다시 담배를 찾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생각나는 통계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상태(fixation)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유치한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유지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해를 맞아 다시금 결단하고 담배를 멀리합니다. 계속 멀리해야 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하다 보니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고, 고착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 고착상태”입니다. 신앙이 진전되지 못한 채 유치하고 부정적인 습관에 얽매어 있고, 주님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지 못한 영적 고착상태라면 불행한 일입니다. 새해 첫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병아리는 한 번 알을 깨뜨리고 나오면 다시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습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고착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업그레이드 / 서순석 목사
(성결교 신학교 교수)

***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발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 Francis Bacon(영국 화가) -